

# 원희룡 장관 “한-폴란드, 신공항 등 인프라 협력 강화”

## - 28일 폴란드 신공항특명전권대표단과 인프라 협력 논의 -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6월 28일(화) 마르친 호라와(Marcin Horała) 폴란드 신공항 특명전권대표\*, 미콜라이 빌드(Mikołaj Wild) 폴란드 신공항사(CPK) 사장 등으로 구성된 폴란드 신공항 협력단과 면담하고, 양국 간 인프라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 폴란드 재정 및 지역경제부 소속, 신공항사업을 총괄하는 정부 전권대표(secretary of states)

○ 폴란드는 기존 관문공항인 바르샤바 쇼팽 공항을 대체하는 유럽 중동부 지역 최대 규모의 허브공항 건설(복합운송허브 개발사업)을 국가적 프로젝트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규모는 신공항 건설 등 약 7조원 규모를 포함하여 연계 도로, 철도와 주변지역 개발을 포함하여 총 10조원 정도로 예상된다.

□ 양국은 지난해 2월, 복합운송허브 개발사업의 인프라 전반에 대한 협력 내용을 담은 양해각서를 체결한 데 이어, 12월에는 보다 구체화된 신공항 개발의 협력 강화 양해각서를 추가로 체결하였으며,

○ 이후 인천공항공사와 폴란드 신공항사(CPK)는 실무 워킹그룹을 운영하고 신공항 사업의 가치 및 타당성 평가를 위한 정보교환 등 지속 협력해오고 있다.

□ 이번 면담 자리에서 원희룡 장관은 “현재 인천공항공사가 폴란드 신공항 사업의 전략적 자문사\*로 참여하는 등 한-폴 양국은 긴밀한 협력관계를 지속 유지하고 있다”면서,

\* 폴란드 신공항 사업 계획의 자문 및 컨설팅 용역('21.1~ , 56억원 규모)

- “신공항 개발사업과 연계된 고속철도 사업에도 현재 우리나라 국가 철도공단이 참여하는 등 앞으로도 다양한 인프라 분야에서 협력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이에 마르친 호라와 전권대표는 “신공항 사업에 인천공항공사 등 많은 한국의 기업들이 투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하길 희망하며, 앞으로도 양국 간 협력이 더욱 공고해지길 바란다”라고 화답하였다.
- 이번 면담을 통해 양국은 신공항 사업에 대한 협력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였으며, 향후 폴란드 신공항 사업과 연계된 설계, 건설 사업에 기술력을 갖춘 국내기업들이 참여할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2022. 6. 28.

국토교통부 대변인